

東亞史上的 장보고와 그 海上王國의 사람들

金 文 經*

一

8~10세기 중국의 山東반도 연해안과 長江·淮水의 하류 그리고 대운하변과 남중국 연해안에는 신라에서 건너 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계중에는 옛날 고구려·백제에서 전쟁포로가 되어 강제로 천사된 자도 있었고, 해적선에 의하여 납치되어 현매된 자, 기아를 피하여 온 자,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 발전기에 진출해 온 무역상인·유학생·구법승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시간과 나라와 경우를 달리하면서도래한 이들 정착민들은 긴 역사 속에서 서로 융합하여 '신라인'으로 각기의 생업에 전념해 갔다.

이들이 정착한 내력과 경위를 현존하는 자료로 하나하나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구려나 백제가 멸망한 뒤 당으로 강제 천사된 유민에 관한 기록들은 중국 사서의 어느 곳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계중에는 당 내외에서 갖가지 활약을 연출하여 중국사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자도 있었다. 고구려 유민 李正己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의 하나다. 그는 安祿山의 반란(755-764)을 계기로 平盧淄靑의 번수가 되었다. 그리고 代宗 永泰 元年(765)부터 憲宗 元和 14년(819)까지 55년간이나 오늘날의 山東省 전역을 점유하고 자립하여 번수직을 그들의 一門이 세습해 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고구려 유민과 '신라인'과의 관계를 시사해 주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서서히 융합되어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8세기경 신라인들은 세계 무역사의 새로운 단계, 즉 동서해상무역의 초기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이 남해항로 또는 '香藥의 길'이라고 해도 좋을 바닷길을 통하여 廣州와 揚州까지 내항하고 있었다. 신라인 무역업자들과의 교역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이 지중해나 중동의 해안에서 수행하였던 그러한 구실을 동쪽의 세계에서, 그것도 전자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해상에서 수행해 갔던 것이다. 山東半島의 연해안에서 대운하의 연변, 그리고 淮河·揚子江 河口·揚州·楚州(淮安)·明州(寧波)·泉州·廣州에 이르는 지역은 물론, 당·일본·신라를 이어주는 삼각무역에도 참여하여 세계 무역의 일익을 담당해 갔다. 그러나 이들의 해상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에서 논급한 여러지역에 산재하던 신라인 촌락들이 있었던 까닭이다.

일본 구법승 圓仁은 서기 838년 7월부터 847년 초겨울까지 거의 9년 반동안이나 당의 동해안 일대를, 또는 광대한 제국의 내륙 등지를 여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入唐求法巡禮行記」(이하 行記라 약칭함)라고 알려진 이 책은 당을 여행했던 일본승의 기록이지만 전권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반 이상은 당나라 사람이나 일본인이 아닌 신라사람들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行記」를 통하여 신라인 촌락의 분포와 조직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믿음이 무엇이었던가를 밝히고 또 장보고는 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갔던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장보고 해상왕국의 바탕이 어디에 있었던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 北九州 일원에 정주했던 신라인과의 관계도 개관할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만을 중점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二

중국 당나라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 803-852)은 장보고(張保臯), 정년(鄭年)의 전기를 지어 그의 문집(樊川文集 권6)에 실고, 장보고에 대한 놀라운 찬사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두목이 남긴 그들의 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사람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로부터 당의 서주(徐州)에 와서 군중소장(軍中少將)이 되었다. 보고는 30세며, 정년은 그보다 10세 연하였다. 두 사람은 싸움을 잘하여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그들의 본국에서는 물론 서주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 뒤에 보고는 신라로 돌아가서 국왕(興德王)을 배알하고 「중국 도처에 신라인이 잡혀와서 노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사람들을 잡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자 국왕은 그에게 1만 인을 주어 그의 청대로 하였다. 그 이후 태화(太和 827-835)년간부터는 신라인을 잡아가는 해적들이 없어졌다. 그러나 보고가 신라에서 청해진 대사가 되어 있을 무렵, 정년은 실직하여 당나라 사주의 연수현(漣水縣)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어느날 정년은 연수를 지키는 장수인 풍원규(馮元規)를 찾아가서 의논하기를 「신라로 돌아가 장보고 아래에 몸을 맡기겠다」고 했다. 원규는 「자네와 보고는 서로 원한을 품고 있는 사이인데 어찌 그에게 몸을 맡기려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정년은 「기한으로 죽는 것보다 싸워 죽는 편이 나으며, 하물며 그것도 고향에서 죽으니 바랄 것이 없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로 돌아가서 보고를 만났다. 보고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여 주연을 베풀었다. 연회가 끝나기 전 국사(國使)가 찾아와서 왕위찬탈의 소식을 전하였다. 보고는 5,000의 군사를 정년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가 아니면 어찌 이 환란을 평정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년은 신라로 가서 반란자를 진압하고 국왕을 옹립했다. 국왕은 보고를 재상으로 삼고 정년을 그의 직(청해진 대사)에 대신케 하였다.”

두목은 장보고의 전기를 이렇게 끝맺고, 그 뒤를 이어 당나라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반란인 안사의 난 토벌에 가장 공이 컸던 곽자의(郭子儀 697-781)와, 그와 앙숙지간이었던 이광필(李光弼 708-764)에 관한 옛 이야기를 기술하고 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온 정년을 마다않고 환대한 장보고를 곽자의에 필적할만한 현인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장보고가 가진 인간적인 의협심과 용맹성, 그리고 한없이 넓은 도량은 같은 시대의 유명한 시인 두목이 전기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며, 또 장보고는 전기작가의 대상이 될 만한 경이로운 인물로 중국에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두목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신라인 장보고를 곽자의와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하고 칭송했다는

사실은 곧 그가 중국에서 차지한 위상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두목이 쓴 이 전기는 거의 그대로 중국의 정사(正史)인 신당서(新唐書 권220)에 인용되고, 다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장보고 정년전에 전제되었다. 더욱이 신당서의 편찬자는 “진(晉)에 기해(祁奚)가 있고 당에 분양(汾陽, 곽자의를 말함)과 보고가 있는데 어찌하여 동이에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이고 있다. 삼국사기의 찬자도 “비록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던들 민멸(泯滅)하여 전문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일본의 입당(入唐) 구법승(求法僧)인 자각대사(慈覺大師) 원인(圓仁)은 서기 838년 7월부터 847년 초겨울까지 거의 9년 반 동안이나 중국의 동해안 일대와 대운하(大運河)변 그리고 광대한 제국의 내륙 등지를 여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고 알려진 이 책에는 원인이 장보고에게 보낸 서찰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한 서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 이후 아직 삼가 만나뵙옵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고명을 듣고 있습니다. 엿드려 경모의 정을 더할 뿐이옵니다. 지금은 중춘으로 벌써 따듯합니다. 엿드려 생각컨대 대사께서도 존체만강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멀리서 은덕을 입사옵고 양봉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저 원인은 옛부터 품어온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당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도저히 필설로 다할 수 없사옵니다. 하옵고 저는 고향(日本)을 떠나올 때 축전(筑前, 북九州)의 태수로 부터 서장을 기탁받아 대사께 바치고저 하였습니다. 하온데 홀연히 배가 침몰하자 화물은 표실되고 서찰도 파도따라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한땀한 마음 날로 더할 뿐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데 질책하심이 없기를 비웁니다. 언제 뵙게 될지 모르옵기에 다만 경모의 마음 더 할 뿐입니다. 예가 아니옵니다만 삼가 서면으로 문안드리웁니다. 불의 근장.”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일은 원인이 입당할 때 태수로부터 장보고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왔다는 점이다. 원인은 일본 조공사의 일원으로 입당하여 당나라 내륙을 순례할 스님이었다. 그러한 신분의 그가 장보고에게 전교될 태수의 서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장보고의 국제적 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장보고는 신라 뿐만 아니라 당나라·일본 등에서도 널리 알려진 당시의 동아시아 해상권을 제패한 해상왕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장보고처럼 중국 일본 양국에 널리 알려진 국제적 인물을 찾아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의 선단은 동아시아 3국을 종횡무진 왕래하면서 위명을 떨치고 신라의 해상발전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이 시대는, 즉 8-9세기란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꽤 흥미로운 시기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신라·당·일본 등 삼국은 비단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같이 중앙집권의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지방분권의 할거상태가 나타난다. 당 제국은 755년에 일어난 안사의 난을 계기로 중앙집권체제는 그 빛을 잃고 지방분권의 절도사 세력이 할거하게 된다. 신라는 7세기 중엽이 되면 통일된 제국을 수립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8세기 말엽에 오면 진골귀족들의 도전을 받아 무너지고, 9세기에 접어들면서 호족들의 지방할거가 시작된다. 일본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9세기 중엽 이후 율령제(律令制)가 무너지면서 지방에서는 토호가 할거하고 영주제, 봉건제로 발전해 갔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제의 붕괴와 지방 호족들의 할거현상은 이들 3국에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이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일은 이와 같은 중앙통제력의 약화와 지방토호들의 분립은, 오히려 그 당시 인민대중이 갖고 있던 숨은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신라사람들은 그들의 저력을 해상진출과 교역활동에 쏟아냈다. 그리하여 장보고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의 영도하에 동아시아 교역권을 형성하고 3국간을 항해하면서 주인노릇을 톡톡히 해 갔던 것이다. 실로 우리나라 역사상 민간인들의 해상진출과 교역활동이 이때처럼 활기찼던 시기는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8세기 경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아시아 삼국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의 새로운 단계에도 가담하고 있었다. 동과 서의 해상무역의 초기단계에 가담하여 마치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상인들이 지중해나 중동의 해안에서 수행하였던 교역활동을 동쪽의 세계에서, 그것도 앞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위험한 황해의 해상에서 수행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해상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동남쪽 연해안과 대운하변 그리고 일본 북구주 등지에 진출하여 삶을 영위해 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이다.

三

8-9세기 중국의 산둥반도 연해안과 회수(淮水)와 대운하변, 그리고 양자강 하류 및 남중국 연해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옛날 고구려나 백제에서 전쟁포로가 되어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굶주림을 피하여 온 자, 해적들에 납포되어 팔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발전기에 진출해 온 무역상인·유학생·구법승·선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시간과 나라와 경우를 달리하면서 건너온 이들 정착민들은 긴역사의 흐름속에서 서로 융합하여 '신라인'으로 각기의 생업에 전념해 갔다.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 나라를 여행하였던 일본 스님의 기록인데도 책 전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반 이상은 당나라 사람이거나 일본사람이 아닌 신라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이 스님의 기록을 통하여 신라인 마을의 분포나 조직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믿음이 무엇이었던가도 밝힐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인의 여행기간은 마침 장보고의 전성기인 '청해진시기'와 같아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던 장보고의 위상과 그의 해상왕국의 실상이 어떠했던가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 산재해 있는 신라사람들의 마을을 연결해 보면 신라와 당나라의 경제중심지를 이어 주는 자연의 수로가 형성된다. 그리고 산둥반도 연해안의 신라촌 중심지는 적산촌(赤山村, 山東省 榮成縣 石島鎮)이 분명하며, 대운하변의 심장부는 초주(楚州, 지금의 淮安)와 연수향(漣水鄉)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강하류의 양주(揚州) 주변에도 신라인 국제무역업자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근자 양주의 외성지(羅城址)에서 수 점의 신라시대의 자기와 고려청자의 파편이 수거되었다. 이 사실로 보아 그 주변일대가 신라인들의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려 때에는 이곳에 "고려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신라시대의 "신라방" 자리가 아니었던가 추측해 볼만 하다.

당시 양주는 장강하류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심장부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인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의 파사국(波斯國, 페르시아) 대식국(大食國, 아랍)

의 상인들도 이곳에 거류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로써 동서를 대표하는 상인들이 양주에서도 교역했으리라는 짐작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삼국사기」 잡기에 보이는 수많은 서방 외래사치상품은 이들 이국상인들을 통한 교역의 한 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단 양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광주에도 신라사람들의 흔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일본 역사책인 「속일본후기」의 845년 12월 5일 조에 보면 신라선원들이 강주(康州, 지금의 廣州)에 표류한 일본사람 50여명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광주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배화교도 등 이곳에 살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로 12만명”이나 되었다고도 하고, 또는 “20만명을 헤아린다”라고도 하고 있다. 신라상인의 이들과의 교역활동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운하변의 초주와 연수향의 신라인 거주지역을 신라방(新羅坊)이라하여 총관(總管)이 행정을 관장하고, 그 아래에 전지관(專知官)과 역관(譯官) 등이 있었다. 초주는 당시 회하(淮河)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를 이어주는 경제적 전략적 요지였다. 수 많은 하천이 직접 간접으로 이곳을 거쳐 흐르기 때문에 운송과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남으로는 양주를 거쳐 항주(杭州)·명주(明州, 지금의 寧波)·천주(泉州)·광주 등 무역항으로 통한다. 서쪽으로는 와하(渦河) 변하(卞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동북으로 35KM 쯤 떨어진 연수향과 더불어 운하변 수운의 중심지였다. 839년 2월 일본 조공사 일행이 귀국하기 위하여 이 두곳의 신라방에서 신라배 9척과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명을 고용하였다. 「속일본후기」에는 신라선박의 우수성과 신라선원들의 뛰어난 항해기술을 부러운듯이 기술하고 있다.

운하길을 벗어나서 산둥반도 남쪽 연해안의 해주(지금의 連雲港) 동해현 숙성촌(宿城村)이나, 제성현의 밀주(密州) 동쪽의 교마포에는 많은 신라인이 거주하였고, 특히 대주산 아래의 교마포에는 신라인들의 조선소와 선박의 수리소도 있었던 것 같다. 청도(靑島)의 동북쪽 지금의 노산만 일원은 국제무역업자들의 기항지였을 뿐만 아니라 남 중국과 북 중국을 왕래하는 연해안 상인들의 기항지이기도 했다.

신라인 촌락은 산둥반도 남쪽 연안일대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모평현의 소촌포 두촌 그리고 해양현 동북쪽의 유산포 등이 그 대표적인 마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산포가 가장 큰 마을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원인스님의 증언에서 얻은 결론이다. 당의 태자통사사인 김간중(金簡中)이 사신이 되어 신라로 출발했던 곳도 이곳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개성 4년(839) 4월 일본조공사선이 유산포에 정박했을 때 30여 신라인이 말과 노새를 타고 와서 선박을 조사할 신라인 관리 장영(張詠)을 마중했던 일이나, 물에서도 많은 여인들을 보았다는 사실은 곧 유산포의 신라인 사회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어라해도 산동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 촌락의 심장부는 적산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신라와 당을 이어 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중원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라·당·일의 3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청주 병마자 오자진(吳子陳)이 신무왕(839)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이 되어 관리 30여명과 함께 신라로 출발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는 서기 820년대 초반경에 장보고가 세운 신라사찰인 적산법화원이 있어 당시 중국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이며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이 절은 연간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가지고, 장보고의 부하이던 장영·임대사·왕훈 등 3명이 경영하고 있었다. 절에는 상주승을 비롯하여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시 거주하고 있었다. 법당과 장경각 그리고 승방·니방·객사·식당과 여러동의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절의 크기도 짐작이 간다.

이 지역의 신라인 사회의 규모는 당시 거행된 겨울철 법화경 강회에 모였던 스님과 신도들의 수로 추측이 가능하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이 법회에는 매일 40명 안팎의 남여 도속이 강청했다. 물론 법회는 신라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라말로 집행되었다. 강회의 마지막 2일간은 250명과 200명이 각각 참례하였다. 물론 이 기간에는 인근 진장촌의 신라승원 천문원(天門院)의 법공스님과 유촌의 상적스님도 참례하였을 것이다. 강경법주 성립화상의 설법을 경청하던 법석신도들의 진지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8세기 초부터 냉각되어 가던 신라와 일본과의 공적인 관계는 중엽 이후 사실상 단절되고 만다. 그러나 일본은 당과의 교통은 물론, 사신의 왕래 교역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정보를 신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교량역할을 담당한 주역들이 곧 신라의 국제무역 상인들이었다. 장보고는 각양각색의 물자를 만재한 무역

선단을 당나라와 일본에 파견하여 대규모의 교역을 했다. 「속일본후기」에 보면 장보고가 파견한 회역사(廻易使)는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교역활동을 했던 것이다. 때로는 장보고의 회역사절이 공식사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의 국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지만, 장보고 선단이 가지고 온 물자만은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회역사들이 가지고 온 “당국화물(唐國貨物)”은 하도 인기가 있어 현지 관헌들로 부터 그 대가로 많은 비단을 미리 받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구주(九州)의 하카다(博多)에다 교역소를 설치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태수(太守)는 물론 일반사람들과도 대규모의 상거래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때 일본정부는 이러한 거래로 말미암아 일본국민들이 재산을 탕진할까 두려워 경계까지 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장보고 선단의 방대한 무역규모와 그 상품의 절대적인 요청이 어느 정도였을까 짐작할 수 있다.

장보고의 무역은 당시 신라를 대표하는 무역이었으며 사무역이라기 보다 오히려 공적인 무역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보고의 무역선단을 “회역사·전당매물사”의 명칭으로 불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보고 무역선단의 방대한 교역활동으로 얻은 재화는 장보고 집단의 세력팽창 뿐만 아니라 신라국력의 신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서방세계의 이슬람·아랍상인들과의 문화 경제 교류에도 크나 큰 업적을 남겼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四

杜牧은 장보고가 가진 인간적인 의협심과 용맹성 그리고 한없이 넓은 도량에 매료되어 그의 전기를 썼다. 장보고가 唐에서 차지하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日本 구법승 圓仁은 承和(838) 조공사의 일원으로 入唐하면서 張保臯에게 전교될 筑前太守의 소개장을 가지고 온다. 이것 또한 장보고의 국제적 명성을 설명해 주는 한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이 장보고는 新羅人이면서도 당시 唐 日本 등지에 널리 알려진 東亞의 海上王이었다. 그의 선단은 동야 3국을 종횡무진 왕래하면서 위명을 떨치고 신라인

의 해상발전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이들의 해상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당시 당나라 동해안 일대와 長江口·淮水·大運河변 또는 日本의 太宰府 관내와 북 九州 등지에 거주하던 新羅인들의 활동이 매우 컸던 까닭이다. 특히 山東연해안 지역은 赤山村이, 그리고 大運河·회하·장강하류 일원은 楚州 漣水郷이 그 中心地였다. 여기서 신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어휘에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 유학생 구법승 기아를 피하여 온 자 또는 해적선에 의하여 나포현매되었던 자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그 구성원이 다양하다 보니 그들의 生業도 다채로울 수 밖에 없다. 관리 승려를 비롯하여 농민·조선업자·선원·상인·해운업자·제염·목탄생산업자 그리고 전적으로 국제 무역에만 종사하는 자 등 각양각색이다. 이들의 해상활동은 唐·新羅·日本 뿐만 아니라 揚州·明州·廣州 등지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페르시아 무역상인과의 교역하였던 흔적이 있어 명실공히 세계 무역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山東반도 연해안과 운하연변 그리고 남 중국 등지에 산재해 있는 신라인 촌락간에는 많은 선박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어 남과 북의 지역적인 거리감이 없었다. 唐은 신라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촌락을 중심으로 ‘句唐新羅所’를 설치하였고, 운하변의 큰 마을에는 ‘新羅坊’을 두어 각각 신라인 押衙와 總管을 두어 이들을 관장하게 하였다. 張保臯는 이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신라인 社會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하여 자신의 영향하에 두었다. 당시 장보고 선단의 중국거점은 赤山浦였다. 이곳에는 년 500미석을 수확할 수 있는 莊田을 가진 赤山法華院이 있어 재당 신라인들의 정신적 위안처가 되었다.

造船術과 항해술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하였던 신라는 일찍부터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다. 특히 청해진이 설치된 후 대일 교역활동은 더욱 발달하였다. ‘唐國貨物’에 대한 일본인의 욕구는 신라의 ‘廻易使’들에 의하여 충족되었다. 상거래는 주로 博多의 太宰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국화물’의 인기는 매우 높아 다량의 무역선도금을 받기도 했다. 太宰府관내 주변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상주하며 이들 무역에 종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 九州일원에 일찍부터 정착한 신라인들도 직간접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기도 했다.

參 考 文 獻

《舊唐書》卷 124 李正己傳

《新唐書》卷 213 李正己傳

《資治通鑑》

《冊府元龜》

《讀日本後記》

《동방견문록》

拙著, 《唐代的 社會와 宗教》, 崇田大出版部, 1984.

拙著, 《唐 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日新社, 1986.

今西龍, 《新羅史研究》, 京城, 1933.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의 研究》 제 4 권, 鈴木學術財團, 1969.

拙稿, 《在唐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 《이홍직 博士 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신구
문화사, 1969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무역품》, 上同書

蒲生京子, 《新羅末期 張保臯의 擡頭と 叛亂》, 《朝鮮史研究會文集》 16, 朝鮮史研究會,
東京, 龍溪書舍, 1979.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震檀學報 1, 1935.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1955

여 백